

## 턱관절 균형과 경맥유주의 상응관계 연구

손인철<sup>1,2</sup>

<sup>1</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sup>2</sup>한국전통의학연구소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MJ) and Meridian Flow

In-Chul Sohn<sup>1,2</sup>

<sup>1</sup>Departmen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s:** TMJ is the joint that connects the mandible to the skull, and it balances the body by holding the skull in the right position. The Meridian flows through the whole bod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MJ) and the Meridian flow, especially around the TMJ.

**Methods:** We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8 Extra Meridians and the 12 Main Meridians around the TMJ.

**Results & Conclusion:** Eight Extra Meridians keep the balance and harmony of the TMJ, and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equilibrium of Yin and Yang of the whole body. The 12 Main Meridians, twelve Meridian Divergence (12經別) and Meridian Sinew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balance and harmony of the whole body based on the function of the Viscera and Bowels (臟腑). So it is conceivable that the role of TMJ is important in terms of health care.

**Key Words:** Temporomandibular joint, TMJ, 8 Extra Meridians, 12 Main Meridians

## 서론

턱관절이란 귀의 전방에 인접해서, 아래턱뼈를 두개골에 연결시키는 관절로서, 측두하악관절이라고 하며, 측두골의 하악와 및 관절결절과 하악골의 관절돌기 사이에 이루어진 관절이다.<sup>1,2)</sup> 턱관절은 입을 벌리거나 닫는 운동과 아래턱뼈(하악골) 운동의 중심축이 되는 관절로, 인체의 유일한 양측성 관절이다. 따라서 턱관절의 이상은 뇌의 불균형 뿐 아니라 인체에 전반적인 균형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턱관절의 주된 기능은 두면부의 아래에 위치하면서 두면부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뇌와 근·골격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케 하고, 음식의 저작과 언어·개구 작용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맥<sup>3)</sup>은 인체의 생명현상인 경락에서 중행하는 대간선

으로, 기혈유행의 통로로서, 인체의 표리, 상하를 소통시키고 장부기관을 연계하는 작용을 한다. 인체의 내외 상하와 기혈유행의 작용과 연계를 맺고, 사지 백해, 오관 피 근, 육, 맥, 골 등 각 방면에 두루 생리기능을 발현하면서 전신의 정체활동을 유지하고 신체 각 기관과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靈樞·海論》<sup>4,6)</sup>에서는 “夫十二經脈者 內屬於臟腑 外絡於肢節”이라 하여 내로 오장육부에 소속되면서 외부로 전신의 사지관절에 고루 연락하여 기혈유행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靈樞·本藏篇》<sup>4,6)</sup>에는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라 하여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氣血運行을 주관하여 筋骨을 힘있고 強하게 하며 關節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했다.

턱관절 균형에 대해 이<sup>7)</sup>는 《턱관절의 비밀》에서 “턱관절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경락체계를 바로 잡아 우리 인체의 모든 음양균형을 평가하고 유도할 수 있는 곳이며, 목뼈(경추)를 비롯한 전신 척주를 바로 세우고 뇌신경계 기능을 정상화 시켜 전신의 음양균형을 반영하고 조절할 수 있는

투고일: 2011년 11월 1일, 심사일: 201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25일

교신저자: 손인철,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63-850-6448, Fax: 063-857-6458

E-mail: ichsohn@wonkwang.ac.kr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난치병 치료에 상당한 임상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저자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의 한의학임상의 치료영역 개발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턱관절을 중심으로 유주하는 경락의 유주현상을 문헌을 통해 찾아본 후 턱관절과 경맥에 일정한 상응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 연구방법

1. 턱관절을 중심으로 경맥의 유주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경팔맥과 십이경맥의 유주가 턱관절 주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았다.
2. 턱관절의 특징을 보기 위해 턱관절 주위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특징을 중시하였다.
3. 본문에 근거한 각 경맥의 유주도는 저작권법상 참고문헌을 밝히고 인용은 생략하였다. 경맥유주도의 문헌은 대학경락경혈학각론과 경락도해(청홍)의 그림을 참고하였다.

## 기경팔맥 유주와 턱관절

기경팔맥은 인체의 정중양에 분포된 임맥·독맥과 배꼽을 중심으로 분포된 충맥, 횡으로 분포된 대맥 그리고 인체의 양측에 분포된 양교맥·음교맥과 양유맥·음유맥의 8종의 경맥으로, 인체생명의 근본인 선천지기 곧 선천지생명의 근원인 하단전에 근거하여 인체 생명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케 한다. 선천지기에 근원하는 기경팔맥은 후천지기에 근원하는 십이경맥의 기혈을 조절하여 전신의 평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sup>17)</sup>

### 1. 임맥-임맥의 기능에 바탕하여 턱관절의 균형과 조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임맥은 음맥지해(陰脈之海)로서 하복부의 포궁에서 기시하여 흉복부의 정중선을 연해서 직상하여 턱관절 하의 염천과 턱 중심의 승장에서 중지하며, 그 가지는 안면을 지나 동공직하의 승읍에 이른다.

《소문·골공론》<sup>5)</sup>: “任脈者, 起于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上頤, 循面入目.”

《기경팔맥고》<sup>11,15)</sup>: “任脈爲陰脈之海. 其脈起于中極之下, 少腹之內, 會陰之分, 上行而外出, 循曲骨, 上毛際, 至中極, 同足厥陰太陰少陰并腹裏, 循關元, 歷石門, 氣海, 會足少陰衝脈于陰交, 循神闕水分, 會足太陰于下腕, 歷建里, 會手太陽少陽足陽明于中腕, 上上腕巨闕鳩尾中庭膻中玉堂紫宮華蓋璇璣上喉嚨會陰維于天突, 廉泉, 上頤循承漿與手足陽明督脈會, 環脣上至下斷交, 復出分行, 循面, 繫兩目下之

中央, 至承泣而終”

임맥은 회음부(中極之下)에서 시작하여 음모부위로 올라가 복내를 순행하며, 상행하여 관원을 지나 인후에 이르고 다시 상행하여 턱부위로 이어져 눈으로 들어간다. 이때 생명의 근원인 하복부는 임맥의 근원이요, 바탕이 되어 경맥의 유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단전과 중단전을 지나 염천부위에서 턱을 지탱하는 힘의 중심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 2. 독맥-음양의 균형 및 후두부와 경추 및 목의 균형을 조절해준다

독맥은 양맥지해(陽脈之海)로서 턱관절과의 관계는 제1, 2경추에서와 구순부 주위에서 균형과 조화에 작용한다. 독맥의 분포경로는 4조이다.

그 중 중심경맥은 하복부의 포궁에서 기시하여 흉배부의 신주를 지나 2경추하의 아문과 1경추하의 풍부에서 후두부와 경추 및 목의 균형을 조절하며, 수구, 태단, 은교에서 췌턱에 연계하여 관절작용에 기여한다.

다른 하나는 하복부에서 기시하여 직상하여 배꼽을 통과해서 상향하여 심장으로 연관되고, 후부로 진입하여 위로 턱에 이르며 구순을 돌아 눈의 하부 중앙부위에 이르게 됨으로서 상하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소문·골공론》<sup>5)</sup>: “督脈者……其少腹直上者, 貫臍中央, 上貫心, 入喉, 上頤, 環脣, 上繫兩目之下中央.”

《십사경발휘》<sup>12,15)</sup>: “督脈者……其少腹直上者, 貫臍中央, 上貫心入喉, 上頤環脣, 上系兩目之中.”

#### <독맥의 유주 요약표>

- 胞中→會陰→風府→絡腦→巔交: 本經 (督脈 제1노선)
- 前陰→會陰→合足少陰腎經→腎俞 (屬腎): 合足少陰 (督脈 제2노선)
- 睛明→百會→入絡腦→腎俞 (絡腎): 合足太陽 (督脈 제3노선)
- 會陰→廉泉→承漿→巔交→兩目下部: 合任脈 (督脈 제4노선)<sup>9)</sup>

이상의 독맥 유주 요약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맥은 하복부에서 힘의 중심을 이뤄줌과 동시에 제1노선과 제4노선이 턱관절의 균형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특히 제1노선은 경추 1, 2추에서 턱관절의 균형에 관여하며, 제4노선은 임맥과 더불어 유주하면서 턱관절의 상하중심 기능을 돕게 된다.

### 3. 충맥-전신의 기능에 두루 관여한다

충맥은 십이경맥지해(十二經脈之海)로서 족양명 위경과 족소음신경의 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충맥은 인

체의 기혈순환과 수화작용을 통한 전신의 기능에 두루 관여하며, 하복부에서 기시하여 턱의 주위 및 양방을 타고 동공부위에 이른다.

이러한 충맥의 분포경로에는 5조가 있어서 전신의 기능에 관여한다. 턱관절과 관계 깊은 충맥의 경로는 제2분지로서 임맥과 함께 포중에서 기시하여 족소음신경과 나란히 하여 진행하고 임맥 양측의 족소음신경을 따라 상행하여 흉부에 이르며 분지하여 가슴에 분포하며 그 주간선은 상행하여 기관 양측을 연하여 인후(목구멍)에 분포하며, 인후에서 상행하여, 하함을 돌아 상행하고 구순에 분포한다.

《영추·오음오미》<sup>6)</sup>: “衝脉任脉皆起于胞中, 上循脊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上行, 會于咽喉, 別而絡脣口.”

《십사경발회》<sup>12,15)</sup>: “衝脉者, 與任脉皆起于胞中, 上循脊裏, 爲經絡之海, 其浮于外者, 循腹上行, 會于咽喉, 別而絡脣口.”

충맥은 기충으로 발하여 족양명을 좇아 족소음과 더불어 병행한다. 이 두 개의 경맥은 위와 신의 기를 받음으로서 인체에서 선천과 후천의 진기를 함축하여 십이경맥지해를 이루고 인체내 경맥 장부의 기혈을 저장하고 기른다.

#### 4. 대맥-하단전의 기능 강화에 기여하며, 하복부에 위치하여 몸의 중심을 잡아준다

대맥은 제2요추와 제3요추의 사이에서 기시하며, 여기에서 족소음신경 별락의 맥기를 받아들인다.

《영추·경별》편에는 다만 대맥의 명칭(當十四椎出屬帶脉)이 기록되어 있고 대맥 분포의 위치에 대한 기록은 없다. 《난경·이십팔난》에는 “回身一周”라는 기록이 있다. 명대 이시진의 《기경팔맥고》에서는 “帶脈則橫圍於腰 狀如束帶 所以總約諸脈者也”라 하고, 양상선은 “帶脉總束諸脉”<sup>12)</sup>이라 하였다.

《영추·경별》<sup>6)</sup>: “當十四椎出屬帶脉.”

《난경·이십팔난》<sup>13,14)</sup>: “帶脈者, 起於季脅, 迴身一周”

《기경팔맥고》<sup>11,15)</sup>: “帶脈則橫圍於腰 狀如束帶 所以總約諸脈者也.”

대맥은 하복부가 중심이 되어 인체 내 모든 경을 약속(約束)하여 전신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 5. 양유맥, 음유맥-인체 좌우의 경맥 및 구조물을 엮어매준다

양유맥은 제양경이 교회하는 곳에서 기시하여 작용하고, 음유맥은 제음경이 교회하는 곳에서 기시하여 작용한다.

양유맥은 후두부에서 풍지혈이 인접한 부위의 경추 및 승모근의 작용에 주로 관여하고, 음유맥은 흉격부위로 상행하여 인후를 끼고 천돌과 염천에서 임맥과 교회하며 위로 두정부에 이른다.

《십사경발회》<sup>15)</sup>: “陰維, 維于陰, 其脉起于諸陰之交……其脉氣所發者, 陰維之鄰, 名曰築賓, 與足太陰會于腹哀·大橫, 又與足太陰·厥陰會于府舍. 期門, 與任脉會于天突·廉泉.”

《기경팔맥고》<sup>11,15)</sup>: “陰維起于諸陰之交, 其脉起于足少陰築賓穴, 爲陰維之鄰, 在內踝上五寸臍肉分中, 上循股內廉, 上行入小腹, 會足太陰·厥陰·少陰·陽明于府舍, 上會足太陰于大橫腹哀, 循脇肋會足厥陰于期門, 上胸膈挾咽, 與任脉會于天突廉泉, 上至頂前而終.”

《기경팔맥고》<sup>11,15)</sup>: “陽維起于諸陽之會, 其脉發于足太陽金門穴, 在足外踝下一寸五分, 上外踝七寸, 會足少陽于陽交, 爲陽維之鄰, 循膝外廉, 上髀厭, 抵少腹側, 會足少陽于居膠, ……過肩前, 與手少陽會于臍會·天膠, 却會手足少陽·足陽明于肩井, 入肩後, 會手太陽·陽蹻于臍俞, 上循耳後, 會手足少陽于風池, 上腦空·承靈·正營·目窓·臨泣, 下額與手足少陽陽明五脉會于陽白, 循頭, 入目, 上至本神而止, 凡三十二穴.”

양유맥, 음유맥은 인체내 음·양 양경맥의 상호관계를 조절하여 인체의 평형과 협조를 유지한다.

#### 6. 양교맥, 음교맥-인체 좌우의 균형과 조화에 관여한다

양교맥은 상행하여 아래턱을 거쳐, 구각 외측에서 직상하여 목하에 이르며, 비스듬히 순행하여 내안각에 이르러 족태양방광경과 서로 회합한다. 내안각에서 기시하며 상행하여 측두를 거쳐 하행하여 풍지혈에 이르고, 풍지혈에서 두개골 내부에 진입하여 뇌에 분포한다. 음교맥은 상행하여 음부를 지나 흉부 안쪽을 순행하여 쇄골상와의 결분에 이르며, 경전 양측의 후를 연하여 인영혈의 전면으로 출해서 면부인 관부의 내측을 지난다(그림. 침구학하(집문당)).

《영추·맥도》<sup>6)</sup>: “蹻脉者, 少陰之別, 起于然骨之後, 上內踝之上, 直上循陰股, 入陰, 上循胸裏, 入缺盆, 上出人迎之前, 入頰, 屬目內眦, 合于太陽陽蹻.”

《난경·이십팔난》<sup>13,14)</sup>: “陰蹻脉者, 亦起于跟中, 循內踝上行至咽喉, 交貫衝脉.”

《기경팔맥고》<sup>11,12)</sup>: “陰蹻者, 足少陰之別脉, 其脉起于跟中足少陰然骨穴之後, 同足少陰循內踝下照海穴, 上內踝之上二寸以交信爲鄰, 直上循陰股入陰, 上循胸裏, 入缺盆, 上出人迎之前, 至咽喉交貫衝脉, 入頰內廉, 上行屬目內眦, 與手足太陽·足陽明·陽蹻五脉會于睛明而上行”

《기경팔맥고》<sup>11,12)</sup>: “陽蹻者, 足太陽之別脉. 其脉起于跟中, 出于外踝下足太陽申脉穴, ……上外踝上三寸, 以跗陽爲郛, 直上循股外廉, 循脇後胛上, 會手太陽陽維于臑俞, 上行肩膊外廉, 會手陽明于巨骨, 會手陽明少陽于肩髃, 上人迎夾口吻, 會手足陽明任脉于地倉, 同足陽明上而行巨膠, 復會任脉于承泣, 至目內眦與手足太陽足陽明陰蹻五脉會于睛明穴, 從睛明上行入髮際, 下耳後, 入風池而終.”

양교맥, 음교맥은 인체내 음양의 편성편쇠를 조절하고, 인체의 상하·전후·좌우 경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전신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기경팔맥과 턱관절균형에 대해 이영준은 그의 저서 “악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sup>16)</sup>”에서 턱관절을 이용한 음양전신균형구조를 설명하면서 그 방법으로 상단전균형, 중단전균형, 하단전균형을 전제한다. 상단전균형은 머리의 무게중심이 척추의 중심균형위치에 음양균형위치를 말하며, 중단전균형은 인체의 중심인 흉곽이나 흉추의 위치가 척추의 중심축에 정확히 놓이는 음양균형위치를 말하며, 하단전균형은 인체의 중심인 요추나 허리 이하의 위치가 척추의 중심축에 정확히 놓이는 음양균형장치를 말한다.

인체의 건강은 이러한 인체의 균형여부가 턱관절의 이상적인 음양균형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턱관절의 이상적인 균형여부는 다시 전신의 음양균형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해서 전신의 음양 균형을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 상응하는 부위에 있는 장부의 음양균형을 조절할 수 있음을 뜻하며, 정기신(精氣神) 삼보(三寶)로 구성된 인체에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의 음양균형여부가 턱관절의 균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턱관절의 기능이 기경팔맥의 작용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십이경맥과 턱관절균형

십이경맥은 후천지생명의 근원인 중초에 근거하며, 그 기는 곡기에 근원하여 전신을 유주한다. 오장육부의 근원이요, 육부의 회혈이고 위의 모혈이며, 수태음폐경의 기시부요, 족厥음간경의 중지부인 중초 부위의 중완은 후천지기의 근원자리로서 곡기의 생성과 운용을 주관한다<sup>17)</sup>.

십이경별은 경별이라고 한다. 경별<sup>3)</sup>은 경맥에서 별행하는 분지를 말하며, 각 경맥은 모두 체강내로 심입하는 경별이라는 분지를 가지고 있다. 경별의 분포상태를 보면 양경의 경별은 지체에서 흉복부의 내장으로 진입한 후에 대개는 다시 경항부로 천출하여 원래 분출했던 십이경 중의 양경과 합류한다. 음경의 경별은 본경 경맥에서 분출한 후에 그 경맥과 표리가 되는 양경의 경별과 병행 혹은 회합하여 최후에 표리관계가 있는 양경경맥과 합류한다. 족삼양경의

경별은 모두 심을 통과하여 위로 두부를 순행하며, 수삼음경의 경별은 액와부에서 내장으로 진행한 후, 모두 후흉을 통과하여 위로 두면부에 달한다.

경별의 작용은 십이경맥의 표리속락관계를 강화하며, 두면부 경맥의 중요성을 높인다.

### 1. 수태음폐경-수태음폐경은 경별의 기능이 턱관절균형에 관여한다

· 수태음경별: 수태음경의 경별은 연맥부위의 수소음심경 앞쪽에서 별도로 갈라져, 폐로 들어간 후, 대장에 퍼지고, 위로 올라가 결분으로 나온 다음 후흉을 따라 다시 수양명대장경과 합해진다.

《영추·경별》<sup>6)</sup>: 手太陰之正, 別入淵腋少陰之前, 入走肺, 散之大陽(腸), 上出缺盆, 循喉嚨, 復合陽明

수태음폐경의 열결은 팔맥교회혈의 하나로서 통우임맥하므로 흉격부와 인후부의 질환을 주치하고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팔맥교회혈은 십이경맥의 사지부에서 기경팔맥과 교회상통<sup>3)</sup>하기 때문에, 열결은 임맥과 교회상통하여 유관경맥인 임맥의 기능을 조절하여 통증을 주치하는 효과가 있다.

### 2. 수양명대장경-구순부 기능과 관계가 깊다

수양명대장경의 경맥 중 지맥은 경맥에서 경부로 올라가 협부를 뚫고 아랫니 치간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입을 순행하여 인중에서 교차한 후 좌측은 우측으로 우측은 좌측으로 올라가 비공을 끼고 순행한다.

《영추·경맥》<sup>6)</sup>: 其支者, 從缺盆上頸貫頰, 入下齒中, 還出挾口, 交人中, 左之右, 右之左, 上挾鼻孔.

· 수양명경근: 경근은 사지말단 수완·족과·주슬 및 구간과 두항부 등 매우 많은 부위에 걸쳐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장에는 불입하고, 사지관절이나 골격부근에서 결집하는 특징이 있다.

수양명경근 중에 직행하는 근은 견우에서 경부로 올라간다. 이곳에서 갈라진 지근은 뺨으로 올라가 광대뼈에 결한다. 직행하는 근은 올라가 수태양소장경근의 앞으로 나온 다음 좌우 액각으로 올라가 두부에 이어지며, 아래로 반대측의 턱으로 내려간다(그림. 대학경락경혈학각론참조).

《영추·경근》<sup>6)</sup>: 手陽明之筋, 起于大指次指之端, 結于腕, 上循臂, 上結于肘外, 上臑, 結于臑.

其支者, 繞肩胛, 挾脊. 直者, 從肩髃上頸. 其支者, 上頰, 結于頰.

直者, 上出手太陽之前, 上左角, 絡頭, 下右頰

수양명대장경은 경근과 함께 경부로 올라가 턱을 지나서 협부를 감싼다. 특기 경맥은 입하치중, 환출협구하고 경근은 협을 지나 액각에 이른다.

### 3. 족양명위경

족양명위경은 코 외측을 내려가서 상치로 입했다가 다시 입을 끼고 입술을 돌며 아래로 내려가, 승장에서 교회한다 음 뒤쪽으로 물러나 턱의 뒷면의 아래쪽을 순행하여 대영혈을 나와 협거를 순행하여 귀앞쪽으로 올라간 다음 상관을 지나 발제를 순행하여 이마에 이른다. 그 지맥은 대영혈 앞에서 인영으로 내려가 후룡을 따라 결분으로 입한다.

《영추·경맥》<sup>6)</sup>: 入上齒中, 還出挾口, 環脣, 下交承漿, 却循頤後下廉, 出大迎, 循頰車, 上耳前, 過客主人, 循髮際, 至額顛; 其支者, 從大迎前下人迎, 循喉嚨, 入缺盆.

· 족양명경별<sup>8)</sup>: 족양명경별은 위로 심을 관통하고 목구멍을 따라 올라가 입으로 나오며 다시 콧등을 따라 올라가 목계에 이어진 다음 족양명위경과 합해진다.

· 족양명락맥<sup>8)</sup>: 족양명락맥은 위로 올라가 두항에 락하여 여러 개의 경기와 만난 다음 아래의 인후에 락한다.

· 족양명경근<sup>8)</sup>: 턱관절과 관계있는 족양명경근은 복부에 퍼졌다가 결분에 결하며, 항부로 올라간 다음 구부 양쪽을 따라 올라가서 광대뼈 부위에서 합해지고 내려가 비에 결하고 다시 올라가 족태양의 근과 합해지는데, 족태양경의 근은 위쪽 눈꺼풀을 둘러싸며, 족양명의 근은 아랫눈꺼풀을 둘러싸고 있다. 다른 지근은 뺨에서 시작해서 귀 앞쪽에서 결한다.

《영추·경근》<sup>6)</sup>: 足陽明之筋, 起于中三指, 結于附上, 邪外上加上于輔骨, 上結于膝外廉, 直上結

于髀樞, 上循脇, 屬脊. 其直者, 上循肝, 結于膝. 其支者, 結于外輔骨, 合少陽.

其直者, 上循伏兔, 上結于髀, 聚于陰器, 上復而布, 至缺盆而結, 上頤, 上挾口, 合于頰, 下結于鼻, 上合于太陽. 太陽爲目上綱, 陽明爲目下綱. 其支者, 從頰結于耳前

### 4. 족태음비경

족태음비경은 경맥유주에서 횡격막을 뚫고 인후를 끼고 올라가 설본에 연하며 혀로 분산된다.

《영추·경맥》<sup>6)</sup>: 上膈, 挾咽, 連舌本, 散舌下

· 족태음경별: 족태음경별은 비부로 올라가 족양명경별과 합해져 위경에서 갈라진 정경과 함께 순행하며 인부에 이어진 후 설중을 관통한다.

### 5. 수소음심경

수소음심경의 분지는 심계로부터 인후를 끼고 상행하여 목계와 연계된다.

《영추·경맥》<sup>6)</sup>: 從心系上挾咽, 系目系

· 수소음경별<sup>8)</sup>: 수소음경별은 연액혈 부위의 양근사이로 들어가서 심에 속하고 후룡을 따라 올라가 얼굴로 나와 목내자에 합한다.

· 수소음락맥<sup>8)</sup>: 수소음락맥은 본경의 경맥을 따라 심중으로 들어간 다음 설본에 이어지고 목계에 속한다(그림. 대학경락경혈학각론참조).

수소음낙맥은 심장에서 기시하며, 식도양측을 따라 상행하여 인후 양측에 이르며, 분지는 설에 분포한다.<sup>12)</sup>

### 6. 수태양소장경

수태양소장경의 지맥은 결분에서 목으로 올라가 뺨을 지나 목예자에 이르렀다가 되돌아서 이중으로 들어가며, 다른 지맥은 별도로 뺨에서 나와 눈밑으로 비스듬히 올라가 코에 이른 다음 목내자에 이르러 비스듬히 관골부에 락한다.

《영추·경맥》<sup>6)</sup>: 其支者, 從缺盆循頰, 上頰, 至目銳眦, 却入耳中; 其支者, 別頰上頰, 抵鼻至目內眦, 斜絡于顛.

· 수태양경근: 수태양경근중 다른 지근은 이중으로 들어가고, 직행하는 근은 이 위쪽으로 나와서 아래로 내려가 턱에 결한 후 다시 올라가 외안각에 속한다(도.대학경락경혈학각론참조).

《영추·경근》<sup>6)</sup>: 其支者 入耳中 直者 出耳上 下結于頰上屬目外眦

### 7. 족태양방광경

족태양방광경은 독맥의 대추와 풍부에서 교회하며, 경별과 경근의 작용에서 턱관절과의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 족태양경별 중에 직행하는 다른 지맥은 척추양쪽 근육을 따라 올라가서 항부로 나와서 다시 족태양방광경에 속한다.

· 족태양경근<sup>8)</sup>: 족태양경근은 척추의 양측을 따라 뒷목으로 올라간다. 다른 갈래는 별도로 설본에 결한다. 뒷목에서 직행하는 갈래는 침골에 결하며, 다시 머리를 넘어서 얼굴로 내려와 코에 결한다. 또 다른 갈래는 윗눈꺼풀을 그물처럼 에워싼 후 내려가 광대뼈에 결한다. 척추에서 갈라진 갈래는 거드랑이 뒤의 바깥쪽에서 어개의 견우부위에 결한다. 척추에서 갈라진 다른 갈래는 거드랑이 아래로 들어가 결분으로 나온 다음 완골에 결한다. 그 갈래는 결분에서 갈라져

나온 다음 비스듬히 올라가 광대뼈로 들어간다.

《영추·경근》<sup>6)</sup>: 足太陽之筋, 起于足小指, 上結于踝, 邪上結于膝, 其下循足外側, 結于踵, 上循跟, 結于臑. 其別者, 結于踇外, 上臑中內廉, 與臑中并上結于臀, 上挾脊上項.

其支者, 別入結于舌本. 其直者, 結于枕骨, 上頭, 下顏, 結于鼻. 其支者, 爲目上綱, 下結于頰. 其支者, 從腋後外廉結于肩髃, 其支者, 入腋下, 上出缺盆, 上結于完骨.

其支者, 出缺盆, 邪上出于頰.

족태양경근은 3개의 분지가 본경 분포구역의 밖에 분포하는데, 제1분지는 어깨에 분포하여 수양명·수소양경근과 상회하고, 제2분지는 흉·경·이후·면협부에 분포하며, 수족양명·수태양·수궤음 등의 경근과 상회하고, 제3분지는 설에 분포하여 수소양경근과 회합한다.

### 8. 족소음신경

족소음신경의 직행하는 경맥은 신에서 올라가 간을 지나 횡격막을 거쳐 폐로 들어가서 후룡을 따라 올라가 설본에 이른다.

《영추·경근》<sup>6)</sup>: 其直者, 從腎上貫肝膈, 入肺中, 循喉嚨, 挾舌本

·족소음경별<sup>9)</sup>: 족소음경별의 직행하는 줄기는 계속 올라가서 설본과 연결되며 목 뒤쪽으로 다시 나와 족태양방광경에 합한다.

### 9. 수궤음심포경

수궤음심포경의 경별이 턱관절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수궤음경별<sup>9)</sup>: 수궤음경별은 연액 아래 3촌 부위에서 별도로 갈라져 가슴으로 들어간 다음 별도로 갈라져 삼초에 속하며, 후룡을 따라 올라가 귀 뒤로 나와서 수소양삼초경과 완골아래에서 합해진다.

手心主之正, 別下淵腋三寸, 入中, 別屬三焦, 出循喉嚨, 出耳後, 合少陽完骨之下.

### 10. 수소양삼초경

수소양삼초경의 한 지맥은 전중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와서 결분으로 나와 뒷목의 옆쪽을 따라 올라간 다음 귀 뒤쪽에서 곧바로 올라가 귀의 꼭대기로 나오며, 뺨을 돌아 아래로 구부러져 광대뼈로 나온다. 다른 지맥은 귀 뒤에서 귀속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귀 앞으로 나와서 상관 앞을 지나 위의 지맥과 뺨 부위에서 교회한 다음 외안각에 이른다.

《영추·경맥》<sup>6)</sup>: 其支者, 從臑中上出缺盆, 上項系耳後,

直上出耳上角, 以屈下頰至頰.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過客主人, 前交頰, 至目銳眦

·수소양경근: 수태양경근 중 한 지근은 아래턱각으로 들어가 설본에 이어진다. 또 다른 지근은 헝거부위로 올라가 귀 앞쪽을 순행하여 외안각에 속하며 이마로 올라가 액각에 결한다.

《영추·경근》<sup>6)</sup>: 手少陽之筋, 起于小指次指之端, 結于腕, 上循臂, 結于肘, 上繞臑外廉, 上肩, 走頰, 合手太陽. 其支者, 當曲頰入繫舌本.

其支者, 上曲牙, 循耳前, 屬目外眦, 上乘頰, 結于角

수소양경근은 하함각처에서 두 개의 분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개의 분지는 설근에 들어가고, 다른 한 개의 분지는 하함각에서 상행하여 치아 이전 외안각에 분포한다.<sup>12)</sup>

### 11. 족소양담경

족소양담경의 한 지맥은 외안각에서 갈라져 나와 대영으로 내려간 후 수소양삼초경과 만난 후 광대 뼈 부위에 이른다. 다음, 헝거로 내려가서 목을 지나 결분에서 본경과 만난다.

《영추·경맥》<sup>6)</sup>: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至目銳眦後. 其支者, 別銳眦下大迎, 合于手少陽, 抵于頰. 下加頰車, 下頰, 合缺盆

·족소양경별<sup>9)</sup>: 족소양경별은 대퇴골을 돌아 음모 부위로 들어가서 족궤음경별과 합한다. 여기에서 갈라진 지맥은 계협부사이에 들어가 가슴속을 순행하여 담,에 소속되고 간에 퍼진 다음 심을 꿰고 인후를 끼고 올라가 아래턱으로 나오며, 얼굴에 피졌다가 목계에 이어진다.

·족소양경근<sup>9)</sup>: 족소양경근 중 직행하는 근은 겨드랑이로 나와 결분을 꿰뚫고 족태양경근의 앞으로 나와서 귀 뒤쪽을 따라 액각으로 올라간 후 정수리에서 좌우로 서로 교차하며, 아래 턱 부위로 내려온 다음 올라가 광대뼈에 결한다. 그 지근은 외안각에서 결하여 눈의 바깥쪽을 둘러싼다.

《영추·경근》: 足少陽之筋, 起于小指次指, 上結外踝, 上循脛外廉, 結于膝外廉.

其支者, 別起外輔骨, 上走髀, 前者結于伏兔之上, 後者結于尻.

其直者, 上乘季脇, 上走脇前廉, 繫于膺乳, 結于缺盆.

直者, 上出腋, 貫缺盆, 出太陽之前, 循耳後, 上額角, 交頰上, 下走頰, 上結于頰.

支者, 結于目眦爲外維.

## 12. 족궤음간경

족궤음간경의 경맥유주에서 턱관절균형과의 연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족궤음간경맥은 십이경맥 중 음경맥 으로서는 유일하게 두정부까지 유주하는 경맥으로서 인체의 균형과 조화에 특별히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족궤음간경은 엄지발가락에서 기시하여 소복부위에 이른 후, 다시 상행하여 횡격막을 뚫고 협늑부에 분포되며, 후통의 뒤를 따라 계속 상행하여 목계와 연결된 후 이마로 나와서 독맥과 백회에서 만난다. 한 지맥은 목계에서 뺨 안쪽으로 내려가 입술 안을 감아 돈다.

《영추·경맥》<sup>6)</sup>: 循喉嚨之後, 上入頰頰, 連目系, 上出額, 與督脉會之巔. 其支者, 從目系下頰里, 環脣內

이상에서 십이경맥은 턱관절을 중심으로 유부하면서 인체의 정상적인 균형과 조화에 관여하는바, 임맥과 족궤음간경이 그 중심을 이루고, 구순부 주위로 족양명 위경과 수양명 대장경이 턱관절을 감싸면서 유주한다. 족태음비경과 수태양소장경, 수소양삼초경 등은 턱관절과 그 주위를 유주하며 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게 한다.

## 고 찰

턱관절은 인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근래 들어 턱관절 장애에 따라 유발되는 증상이 다양할 뿐 아니라,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어가고 있다. 턱관절이 구조적으로 두면부 아래에 위치하여 두면부 힘의 중심을 이루는 작용을 한다고 볼 때, 이는 전신의 균형과 조화에 주요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여, 임상에서의 치료효과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턱관절과 그 주위에 유주하는 경맥을 문헌을 통해 조사해보았다.

턱관절은 인체에서 두면부를 지탱하는 아랫턱의 중심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므로 그 역할이 기경팔맥과 관계가 깊고, 생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 저작을 주관하는 기능을 통해 생명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경맥의 유주현상을 통해 볼 때 십이경맥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턱관절에는 인체의 주요 경맥인 임맥과 족궤음간경이 그 중심을 이루고, 구순부 주위로 족양명 위경과 수양명 대장경이 유주하며, 족태음 비경과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등이 턱관절과 그 주위를 유주하며 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게 한다. 십이경맥과 경별 및 경근 등은 장부의 기능에 근거하여 전신의 균형과 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바, 턱관절의 균형 조화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임상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턱관절 균형을 통한 건

강유지에도 치료효과를 앞당길 것이다.

경맥은 인체의 생명현상으로서, 인체내 기혈의 소통과 음양의 균형 조화를 주관하며, 턱관절의 균형은 전신의 음양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의학’의 저자 이영준<sup>16)</sup>은 턱관절의 4차원적인 음양중심균형구조에서 턱관절균형 방법으로 수평균형, 좌우균형, 전후균형, 상하균형을 전제한다. 수평균형이란 턱관절이 있어야할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수평균형 위치로서 양측 턱관절의 수평높이가 일정한 균형 위치를 말한다. 좌우균형이란 턱관절이 있어야할 좌우의 중심축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좌우의 음양 중심균형위치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전후균형이란 턱관절이 있어야 할 전후의 가장 이상적인 음양중심균형위치를 말한다. 상하균형이란 턱관절이 있어야할 상하의 가장 이상적인 음양균형위치를 말한다. 이는 정상적인 인체가 가지는 항상성에 바탕한 구조의 특징으로서 인체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십이경맥의 기능과 작용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인은 환경적으로 섭생의 문제와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으로 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전신 및 턱관절의 불균형과 함께 인체가 불균형 부조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턱관절 균형에 대한 기본 이해를 통해 턱관절 장애 등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질병을 미리 예방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임상가에서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체의 생명현상인 기경팔맥과 십이경맥은 인체에 작용하는 수화의 균형과 기혈의 정상적인 유주를 통해 전신의 음양과 평형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도 턱관절 균형과 인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결 론

턱관절과 경맥유주의 상응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경팔맥과 십이경맥이 턱관절 부위로 어떻게 유주하는가를 문헌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턱관절에서 기경팔맥은 상하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여, 전신의 음양과 평형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십이경맥과 경별 및 경근 등은 장부의 기능에 근거하여 턱관절을 중심한 전신의 균형과 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3. 턱관절은 인체에서 두면부를 지탱하는 아랫턱의 중심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므로 그 역할이 기경팔맥의 유주와 관계가 깊고, 생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 저작을 주관하는 기능을 통해 생명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경맥

의 유주현상을 통해 볼 때 십이경맥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턱관절에는 인체의 주요 경맥인 임맥과 족궤음 간경이 그 중심을 이루고, 구순부 주위로 족양명 위경과 수양명 대장경이 유주하며, 족태음 비경과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등이 턱관절과 그 주위를 유주하면서 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게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턱관절은 인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인체의 건강관리에 턱관절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턱관절의 이상은 뇌의 불균형 뿐 아니라 인체에 전반적인 균형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인체의 건강관리에 턱관절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며, 향후 턱관절의 균형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Gray H. Gray's anatomy. Churchill Livingstone, 1999: 526-527.
2. 대한국소해부학회. 국소해부학 둘째판. 서울:고려의학. 2005:588.
3. 전국한의학대학교 침구경혈학교실. 침구학 상. 서울:집문당. 1998:37, 45, 200.
4.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2. 서울:여강출판사. 2000:281, 491.
5.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성보사. 1980:442.
6.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성보사. 1980:104-145, 148-151, 163-170, 280, 349, 442, 444, 463.
7. 이영준. 턱관절의 비밀①. 천안:도서출판 일연. 2011:31.
8. 전국한의학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대학경락경혈학(상). 원주:의방출판사. 2010:163, 164, 408, 513, 514.
9. 전국한의학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대학경락경혈학(하). 원주:의방출판사. 2010:914, 915, 1200, 1201.
10. 楊繼洲 撰, 鍼灸大成校釋. 서울:의성당. 1993:987-995, 1005-1017.
11. 李時珍. 奇經八脈考:圖解 本草綱目. 서울:고문사. 1987:1749-1772.
12. 손인철, 이문호 譯. 경락도해. 서울:청흥. 2007:119, 182, 186-188, 193, 287, 295.
13. 王洪圖, 烟建華. 難經. 北京:春秋出版社. 1988:48-49.
14.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서울:고려서점. 1985:181.
15. 滑伯仁 原著, 承澹齋 校註, 校註古本 十四經發揮(鍼灸資生經, 十四經發揮 合刊). 臺北:旋風出版社. 1980(중화69년):72, 75, 77-81.
16. 이영준. 악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 (1부 이론:뇌척추기능의학). 서울:고려의학. 2007:385-388.
17. 손인철. 기경팔맥의 특징과 임상적 의의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8;25(1):39-50.